

자기고양과 적응 간의 관계

노연희†

손영우

고려대학교 BK21 뇌기반 심리학 연구단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고양과 적응지표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77개 조에 소속된 38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별과제 참여·기여도에 대한 자기평가, 타인에 의한 평가 및 타인에 대한 평가 점수로 자기고양의 세 지표인 자기통찰 지표, 사회비교 지표 및 SRM(Social Relations Model) 지표를 산출한 후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고양의 자기통찰 지표는 조별과제 참여·기여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와 타인평가 점수차로, 사회비교 지표는 자기평가 점수와 타인에 부여한 평가점수의 차로, 그리고 SRM 지표는 자기평가에서 각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를 뺀으로써 산출되었다. 적응의 지표로 삶의 만족, 자존감, 정서적 안정성 및 개인수행을 선정하여 자기고양의 지표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고양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 안정성도 양호하나, 개인수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비교 지표에서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자존감 및 개인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수행 측면에서 자기통찰 지표와 대조를 이루었다. SRM 지표의 경우 유일하게 자존감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점수의 고/저, 사회비교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에게 부여한 점수 평균의 고/저에 따라 각각 일치-저, 고양, 겸양, 일치-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적응 지표상에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자기고양 여부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일치-저, 겸양, 일치-고 세 집단이 포함된 집단별 적응 특성에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고양의 지표와 적응의 측정치(자기보고 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자기고양과 적응과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자기고양, 자기통찰 지표, 사회비교 지표, SRM 지표, 적응

자기고양과 개인의 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관점의 연구자들과 ‘과도하게 긍정적인 자기 고양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관점의 연구자들 간에 오랜 논쟁이 있어 왔다(Kwan, John, Kenny, Bond, & Robins, 2004). 먼저 전자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현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행동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고,

자신에 대해 타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여겨 왔다(Colvin, Bolck, & Funder, 1995). Allport(1937)는 “자신에 대해 편파되지 않은 객관적인 태도는 다른 덕목의 발달에 기본이 되는 주요 덕목이다. 그러나 자기를 손상시키는 정당화와 합리화로 성장과 적응을 방해하는 만성적인 자기기만의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자기 지식(self-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Colvin et al., 1995). Jahoda(1958)는 정신건강에 관한 대다수의 이론들이 현실과의 긴밀한 접촉은 정신건강의 결정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언급하고, 개인이

† 교신저자: 노연희, 고려대학교 BK21 뇌기반 심리학 연구단, amie24@nate.com

보는 것과 실체가 일치할 때에야 현실의 지각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부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Jahoda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문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와는 대조적인 후자의 관점은 Taylor와 Brown(1988, 1994)에 의해 대표된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착각(positive illusions)을 나타내는데, 그 세 가지에 비현실적인 긍정적 자기평가, 통제력에 대한 과장된 지각, 그리고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포함되며, 이러한 경향성은 병리적이 아닌 대부분의 정상인 집단에서 흔히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현실적인 긍정적 자기평가는 사소한 비판을 무시하고 실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Paulhus, 1986; Taylor & Brown, 1988).

자기고양과 적응 간 관계에서 연구결과의 불일치 원천

정확한 자가지각(또는 자기고양)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경험적으로 접근하였고, 두 입장 모두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런 불일치에 대해 Kurt와 Paulhus(2008)는 네 가지 조절변인을 제안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첫째, 자지고양의 조작적 정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자지고양이 사회비교 측정치로 정의된 경우 적응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반면, 신뢰할만한 준거와의 불일치 정도로 정의된 경우 장기적 적응 지표와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e.g., Colvin et al., 1995; John & Robins, 1994; Kwan et al., 2004).

둘째, 자지고양이 측정되는 영역에서의 차이가 연구결과의 불일치 원천이 될 수 있다. Paulhus와 John(1998)은 성격과 능력 변인에서의 자지고양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지고양에 주도적 친화라는 두 개의 영역이 있으며, 주도적 영역에는 지능, 외향성, 개방성이 포함되고, 친화적 영역에는 원만성, 책임감, 도덕성 등이 포함됨을 발견하였다. 주도적 영역에서의 자지고양은 동료 평가한 적응과 부적 관계

를 나타낸 반면, 친화 영역의 자지고양은 동료가 평가한 적응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적응의 평가자가 누구인지, 즉 자기보고 자료를 사용하느냐 혹은 동료평정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모두 자기보고 자료를 사용한다면 ‘동일 방법으로 측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common method variance)’로 인해 인위적인 긍정적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몇몇 연구자들은 동료평정, 전문가 평정, 학교 기록(예: 낙제율) 등의 객관적 방법을 선택해왔고 이 같은 방법은 동일방법오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적응 수준을 추론하는데 좀 더 신뢰할만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개인의 현상학적 경험의 측면은 행위자 자신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적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자지고양과 적응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심리적 적응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가 개인 적응과 관계 적응이며, 개인 적응은 행복감, 자존감, 일반적인 주관안녕과 같이 주관적 경험의 긍정성과 안정성을 뜻하고, 관계 적응은 타인과의 관계의 긍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일찍이 자지고양과 적응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구분임이 밝혀졌다. 준거와의 불일치로 측정된 자지고양은 개인적응에 비해 관계적응에 보다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지고양의 지표

Kwan 등(2004)이 자지고양의 정의와 측정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그들이 개관한 연구의 절반 정도가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Allport(1937)의 자기통찰이론(self-insight theory)에 기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여기에 SRM(Social Relations Model)의 자지고양 지표를 추가하였다. 자지고양 지표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지고양의 사회비교 지표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타인을 지각하는 방식 간의 불일치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불일치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에 두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대학교수의

94%이상이 자신의 교수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s, 1977). 자기고양의 사회 비교 지표와 주관적 안녕 및 자존감의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다(e.g., 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둘째, 자기고양의 자기통찰 지표는 어떤 속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그러한 속성의 실제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간의 불일치로 정의된다(Kwan et al., 2004; Lönnqvist, Leikas, Verkasalo, & Pajunen, 2008). 실제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는 성격에 대한 동료평가(Paulhus, 1998), 성격에 대한 전문가 평가(Colvin, Block, & Funder, 1995), 특정 기술에 대한 평정(John & Robins, 1994), 대학 학점과 같은 지표(Gramzow, Elliot, Asher, & Holly, 2003)가 사용되어 왔다. 자기통찰 지표를 사용한 연구들은 자기고양이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이라 결론 내려왔다.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고양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초기 대면에서는 관찰자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7회의 만남 후의 평가는 허세부리는 경향이 있고, 적대적이며, 덜 원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Paulhus, 1998). 자기통찰의 자기기만은 대학에서의 낮은 평점과 관계있었고(Gramzow et al., 2003), 모의 직업 활동의 과제에서 동료와 전문가가 평가한 성공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John & Robins, 1994). 그러나 자기통찰 지표의 자기고양은 자기보고된 정신건강 준거와는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ylor, Lerner, Sherman, Sage, & McDowell, 2003).

셋째, SRM(Social Relations Model, Kenny, 1994; Kenny & La Voie, 1984)은 자기기만을 연구하기 위한 통합지표로서 대인지각에서의 변량을 세 개의 기본요소로 나눌 수 있는 쌍 데이터의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SRM에 따르면 대인지각의 변량에는 지각자 효과(perceiver effect), 대상 효과(target effect), 그리고 특정한 지각자와 특정한 대상의 독특한 관계효과가 있다. SRM은 자기지각을 지각자와 지각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대인지각의 특수한 경우라고 본다. 이러한 도식에서 어떤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 때문일 수 있다(지각자 효과).

둘째, 타인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경향, 즉 대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대상 효과). 셋째,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다. 마지막 이유가 Kwan 등(2004)이 말하는 SRM 자기고양 지표이며 지각자와 대상 효과가 배제된 자기지각의 독특한 요소이자 순수한 자기고양의 요소이다.

Kwan 등(2004)의 세 지표 비교에 의하면 사회비교 지표의 자기고양에는 대상 효과가 혼입되기 쉽다. 대상 효과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개인이 평균의 타인들보다 더 양호하게 평가된다면, 사회비교 지표는 평균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좋게(정확하게) 평가한 개인을 자기고양자로 잘못 분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비교 지표는 개인의 자기평가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기통찰 지표의 자기고양에는 개인이 타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의미하는 지각자 효과가 혼입되기 쉽다. 자기통찰 지표는 한 개인의 자기평가와 그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해도 이를 구별해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SRM의 경우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회비교 지표와 자기통찰 지표가 갖는 한계에 영향 받지 않는다. 즉 지각자의 긍정 편향과 좋게(정확하게) 평가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의 특성에 영향 받지 않고, 순수한 자기고양만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도 잘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자기고양의 지표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고양의 대표적인 세 지표로서 자기통찰 지표, 사회비교 지표, 그리고 SRM 지표가 적응의 지표들과 나타내는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Kwan 등(2004)이 제안한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가 적응의 지표들과

나타내는 관계도 살펴보았다.

둘째, 지금까지의 자기고양에 관한 연구들은 자기고양의 정도와 적응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는 정확평가 집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또한 정확평가 집단 내에서 특질이나 수행 상 양호함의 정도에 따른 집단의 구분 없이 정확평가 집단을 단일 집단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정확집단 내에서의 분산에 대한 관심 또한 부족하였다. 비록 인사심리 분야에서 일치 집단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분류가 개인 및 조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평정의 대상이 받은 평정치의 양호도에 따라 일치-양호 집단과 일치-부적합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e.g., Atwater & Yammarino, 1997), 사회 및 성격 심리 분야에서 상당수의 연구가 자기고양의 정도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예: 고재홍, 전병우, 2003; 최해연, 구자숙; 2009; Lönnqvist et al., 2008; Paulhus, 1998). 이에 본 연구는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점수, 사회비교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들에게 부여한 점수의 쌍을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적응 지표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기통찰 지표 및 사회비교 지표가 적응과의 관련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기고양과 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 간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원천에 적응의 평가자 요인이 있으며, 적응의 평가가 자기 자신인지(자기보고 자료) 혹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Kurt & Paulhus, 2008). 적응이란 개념이 광범위하고 다소 모호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공통의 핵심 세 영역으로 개인 내적 적응, 대인 적응, 그리고 수행의 측면이 있다(Kwan et al., 2004). 개인 내적 적응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과 행복 또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대인 적응에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성취 측면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지표로 개인 내적 적응과 수행 측면을 포함시켰고, 개인 내적 적응의 지표로 많이 연

구되어온 자존감(e.g., Kobayashi & Brown, 2003; Kwan et al., 2004; Taylor & Brown, 1988), 삶의 만족(e.g., Kurt & Paulhus, 2004), 정서적 안정성(e.g., Kurt & Paulhus, 2004)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고, 성취의 지표로 개인 수행(e.g., 노연희, 손영우, 2011; Atwater, Ostroff, Yammarino, & Fleener, 1998; Bass & Yammarino, 1991; Robins & Beer, 2001)을 객관적 자료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적응의 지표로 개인 적응의 주관적 측정치와 객관적 측정치에 따라, 자기고양과 적응 간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두 곳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들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생 354명과 심리학 전공과목 수강생 32명으로 총 38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수강한 과목은 총 6개 과목이었고, 1~2학기 99명(25.7%), 3~4학기 101명(26.2%), 5~6학기 78명(20.2%), 7학기 이상 102명(26.4%)이었으며 학기 무응답자는 6명(1.6%)이었다. 이들의 평균 학기는 4.5학기였고, 평균 연령은 21.7세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192명(49.7%), 여자가 194명(50.3%)이었다. 이들이 소속된 단과대학은 자연과학대학 87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대학 70명(18.3%), 사회과학대학 62명(16%), 인문대학 55명(14.2%), 공과대학 44명(11.4%), 경제학부 36명(9.3%), 법과대학 14명(3.6%), 그리고 기타 대학 18명(4.7%)의 분포를 나타냈다. 총 386명의 연구 참여자 중 개인 수행의 차이분석에는 전체 386명의 자료가 포함되었고, 자존감 및 정서적 안정성에서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는 369명의 자료가, 삶의 만족에서의 차이분석에는 245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연구 절차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86명의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학기 동안 조별과제(활동)에 참여하게 한 후, 10주 이상 조원들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강 일에 조별과제(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기여도에 대해 자신과 조원들 각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 및 타인에 의한 평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도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외한 적응 지표 변인들은 종강을 1주~2주 앞둔 시점에 웹상에서 실시된 설문과 지면을 이용한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할 경우 수강한 과목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예고하였다. 구체적인 조구성 및 조별과제(활동)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체 16주인 학기가 시작된 후 4주 경과된 시점에서(수강인원 확정 후),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조 추첨을 실시하여 무선적으로 조를 구성하였다. 전체 77개 조는 구성원이 3명(5개 조), 4명(21개 조), 5명(30개 조), 6명(13개 조), 7명(5개 조), 그리고 8명(3개 조)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한 학기 동안 한 팀으로 조별과제에 참여하거나 조별활동을 하였다. 조별과제는 5개 강좌에서 실시되었는데, 수강하고 있는 과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비연구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종강 2주 전에 완성된 과제를 제출하였다. 공식적인 조모임은 한 학기 동안 4회 정도 약 15분간 이루어졌고, 그 외의 조모임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별 활동은 1개 강좌에서 이루어졌고, 매주 조별로 대인관계 훈련 및 의사소통 훈련을 하는 활동이었다. 조별 과제(활동)에 대한 참여·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학기말 시험 때 답안지와 함께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평가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기여도 평가지에 각 조의 조원명단을 출석부 순서대로 제시함으로써 자기평가가 타인평가에 선행하거나, 타인평가가 자기평가에 선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여·기여도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전체 성적의 5% 수준에서 반영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고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척도와 개인의 적응

지표로서 삶의 만족, 자존감, 정서적 안정성 및 개인수행의 측정치가 사용되었다.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조별과제를 위한 활동에 자기 자신과 조원 각각의 참여도와 기여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참여도란 ‘조별과제를 위한 활동(또는 조별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나타내며, 기여도란 ‘아이디어 제안, 문제 해결 등 최종과제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나타낸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참여도와 기여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 두 값을 평균한 값’이다. 타인평가는 타인에 의한 평가로서 ‘본인을 제외한 조원들이 그를 평가한 참여도와 기여도 점수의 평균값’이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는 자기고양의 자기통찰 지표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자기고양의 사회비교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한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조원들의 평균 참여·기여도 점수가 필요하므로, 자신 이외의 다른 조원들에게 부여한 점수들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를 타인평가_h라고 명명하였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모두 5점 척도 상(1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5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타인평가 : 타인에 의한 평가점수 평균

타인평가_h : 타인에 대한 평가점수 평균

자기고양의 세 지표와 지각자 효과 및 대상 효과

자기고양의 세 지표로서 자기통찰 지표, 사회비교 지표, 그리고 SRM 지표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통찰 지표는 ‘참여·기여도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타인평가’를 뺀 값으로, 0을 초과할수록 자신에 대한 조원들의 참여·기여도 평균 점수보다 자기평가 점수가 높아짐과 함께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아짐을 뜻한다. 사회비교 지표는 ‘참여·기여도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조원들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인 타인평가_h’를 뺀 값으로, 0을 초과할수록 자신을 제외한 조원들의 평균보다 자신의 참여·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SRM 지표는 ‘자기평가 점수에서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를 뺀’으로써 산출되었다(Kwan et al.,

2004; Kwan, John, Robins, & Kuang, 2008). 지각자 효과는 자신을 제외한 조원들 각각에 부여한 점수의 평균인 타인평가_n에서 조 구성원들의 참여·기여도 평균(grand mean)을 뺀으로써, 대상 효과는 조원들이 특정 개인에게 준 점수들인 타인평가의 평균에서 조원들의 참여·기여도 평균(grand mean)을 뺀으로써 산출된다(부록 참조). 그러나 본 연구는 Warner, Kenny 및 Stoto(1979)가 보여준 라운드 로빈(round robin) 설계에서의 ‘파트너 누락 편향(missing partner bias)’에 대한 교정 공식(Kenny, 1994; Warner et al., 1979)을 적용한 교정점수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

Diener, Emmons, Larson 및 Griffin(1985)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의 한국판(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측정하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매우 동의함)이며 내적 신뢰도는 .86이었다. 삶의 만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 척도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이영호, 1993). 이 척도는 자아 존중의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1: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이며 내적 신뢰도는 .84였다. 자존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9)가 개발한 성격 척도(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의 신경증 요인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내적 신뢰도는 .88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인수행

본 연구에서 적용의 지표로 사용된 수행은 연구 참여자들이 수강한 과목의 개인수행 점수로 측정되었다. 수강한 과목의 총점은 중간고사(또는 개인과제) 30%, 기말고사 35%, 출석 10%, 조별과제 및 발표 20%, 그리고 조별과제(또는 활동) 참여·기여도 5%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수행은 개인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인과제 및 출석점수만 합한 점수를 나타낸다. 과목별 난이도와 점수 분포가 상이하므로 해당 과목별로 총점을 z점수로 환산하여 개인 수행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자기고양의 세 지표와 적용 지표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와 적용 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역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고양의 정도에 따라 각 집단별 적용의 양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자기통찰 지표와 사회 비교 지표별로 집단을 세분화 하였다. 먼저 자기통찰 지표의 경우 참여·기여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고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3). 자기평가의 경우 4.5점 이하를 저집단, 4.5점을 초과할 경우 고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타인평가의 경우 4.38점 이하를 저집단, 4.38점 초과시 고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모두 중앙값을 초과하는 경우 일치-고집단₁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모두 중앙값 이하인 경우 일치-저집단₁로 분류하였다. 자기평가는 중앙값을 초과하나 타인평가는 중앙값 이하인 경우 고양집단₁로, 자기평가는 중앙값 이하이나 타인평가는 중앙값을 초과하는 경우 겸양집단₁로 분류하였다. 중위값을 분류기준으로 사용함에 따라 자기평가 점수가 타인평가 점수와 같음에도 겸양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5명은 집단별 적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회비교 지표의 경우 역시 참여·기여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n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고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표 4). 자기평가의 경우 4.5점 이

표 1. 자기평가, 타인평가_h 및 타인평가_h 점수 분포

점 수	자기평가			타인평가 _h			타인평가 _h		
	빈도	%	누적%	빈도	%	누적%	빈도	%	누적%
1점~1.9점	2	.6	.5	1	.3	.3	1	.3	.3
2점~2.9점	5	1.3	1.8	25	6.5	6.7	16	4.1	4.4
3점~3.9점	43	11.2	13.0	90	23.3	30.1	124	32.1	36.5
4점~4.9점	153	39.6	52.6	219	56.8	86.8	161	41.7	78.2
5점	183	47.4	100	51	13.2	100	84	21.8	100
전체	386	100	.	386	100	.	386	100	.

하를 저집단, 4.5점을 초과할 경우 고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타인평가_h는 4.25점 이하를 저집단, 4.25점 초과 시 고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h가 모두 중앙값을 초과할 경우 일치-고집단_h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h가 모두 중앙값 이하인 경우 일치-저집단_h로 분류하였다. 자기평가는 중앙값을 초과하나 타인평가_h는 중앙값 이하인 경우 고양집단_h로, 자기평가는 중앙값 이하이나 타인평가_h는 중앙값을 초과하는 경우 겸양집단_h로 분류하였다. 사회비교 지표에서 자기평가 점수가 타인평가_h 점수보다 높거나 같음에도 겸양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12명은 집단별 적응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_h 점수, 사회비교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_h 점수의 쌍을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적응 지표상의 차이에 대해 상세히 접근하고자,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집단 간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다중비교 분석(Scheffe 방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먼저 조별 과제에 대한 참여·기여도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자기평가의 경우 5점에 해당하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상당히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183명(47.4%)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꽤 기여한 편이다’라는 평가가 153명(39.6%)이었으며, ‘소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약간 기여하였다’ 혹은 ‘거의 참여/기여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7명(1.8%)이었다.

조별 과제 참여·기여도에 대한 타인평가_h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51명(13.2%)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는 219명(56.8%)이었으며, ‘거의 참여/기여하지 않았다’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약간 기여하였다’는 26명(6.7%)이었다. 표 1에 나타난 조별과제 참여·기여도에 대한 분포는 타인평가_h보다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타인평가_h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84명(21.8%)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는 161명(41.7%)이었으며, ‘거의 참여/기여하지 않았다’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한 편이다/약간 기여하였다’는 17명(4.4%)이었다.

자기고양의 세 지표와 적응 간의 관계

자기고양과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고(표 2)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West, Finch, & Curran, 1996).

먼저 자기고양의 세 지표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기고양의 자기통찰 지표와 사회비교 지표는 SRM 지표와 정적 상관 나타냈고(순서대로 $r=.61, p<.001, r=.56, p<.001$), 자기통찰 지표와 사회비교 지표 역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r=.22, p<.001$), SRM 지표와의 상관보다 낮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고양의 정도에 따라 적응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자기고양의 세 지표와 적응을 나타내

표 2. 자기고양 지표와 적응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M	SD	왜도	첨도
1. 자기통찰지표												.26	.72	.38	1.11
2. 사회비교지표	.22 ^c											.27	.77	-.36	4.83
3. SRM 지표	.61 ^c	.56 ^c										.27	.76	.34	1.88
4. 지각자효과	.39 ^c	-.41 ^c	-.49 ^c									-.01	.53	-.13	-.16
5. 대상효과	-.41 ^c	.49 ^c	-.45 ^c	.08								.00	.57	-.45	.61
6. 자기평가	.50 ^c	.58 ^c	.22 ^c	.29 ^c	.39 ^c							4.44	.69	-1.41	2.39
7. 타인평가 _I	-.54 ^c	.34 ^c	-.41 ^c	-.12 ^a	.79 ^c	.46 ^c						4.18	.71	-1.00	.53
8. 타인평가 _{II}	.26 ^c	-.56 ^c	-.41 ^c	.76 ^c	-.16 ^c	.36 ^c	.09 ⁺					4.17	.68	-.53	-.29
9. 삶의 만족	.03	.15 ^a	.03	.01	.14 ^a	.14 ^a	.11 ⁺	-.02				4.25	1.12	-.07	-.45
10. 자존감	.14 ^b	.13 ^a	.11 ^a	.04	.03	.19 ^c	.04	.05	.56 ^c			3.18	.48	-.74	.36
11. 신경증	-.13 ^a	.05	-.05	-.09 ⁺	.11 ^a	-.08	.05	-.14 ^b	-.33 ^c	-.45 ^c		2.89	.75	.08	-.48
12. 개인수행	-.12 ^a	.25 ^c	-.08	-.05	.34 ^c	.23 ^c	.34 ^c	-.06	.01	.08	.14 ^b	.00	.99	-1.42	2.87

+: $p < .10$, a: $p < .05$, b: $p < .01$, c: $p < .001$

는 지표로서 삶의 만족, 자존감, 신경증(정서적 안정성) 및 개인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고양의 자기통찰 지표는 삶의 만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r = .03$ *n.s.*),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r = .14$, $p < .01$)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자기통찰 지표는 신경증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r = -.13$, $p < .05$),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은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개인수행과 관련해서는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수행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2$, $p < .05$).

자기고양의 사회비교 지표는 삶의 만족 및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순서대로 $r = .15$, $p < .05$, $r = .13$, $p < .05$), 사회비교 지표상의 자기고양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 자존감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자기통찰 지표와 달리 사회비교 지표는 개인수행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r = .25$, $p < .001$),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수행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RM 지표는 적응 지표 중 유일하게 자존감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r = .11$, $p < .05$). SRM 지표가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를 배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편향이나 대상의 특성을 제외한 순수한 자기고양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자의 긍정 편향을 나타내는 지각자 효과는 신경증과는 부적 관계의 경향성을 나타내($r = -.09$, $p < .10$) 긍정 편향이 클수록 정서적 안정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대상 효과란 대상이 타인에 의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 효과가 크다는 것은 한 개인이 조별 과제에 대한 참여·기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 효과는 삶의 만족과 정적 관련성을($r = .14$, $p < .05$), 개인수행과도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r = .34$, $p < .001$), 대상 효과가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개인수행도 양호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상 효과는 신경증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r = .11$, $p < .05$), 대상 효과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이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자기통찰 지표와 사회비교 지표의 자기고양에 따른 집단별 적응의 차이

일치-저집단₁과 일치-고집단₁은 각각 140명(36.7%)과 117명(30.7%)이었고 고양집단₁과 겸양집단₁은 각각 66명(17.3%)과 58명(15.2%)이었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를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별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차이값,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점수의 기술통계치와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점수의 고저에 따른 집단 분류 및 평가 점수-자기통찰 지표

집 단	자기-타인 평가 _I	빈 도	%	자기평가-타인평가 _I		자기평가		타인평가 _I	
				M	(SD)	M	(SD)	M	(SD)
일치-저 _A	저-저	140	36.7	.25	.72	3.84	.67	3.59	.60
고양 _A	고-저	66	17.3	1.13	.59	5.00	.00	3.87	.59
겸양 _A	저-고	58	15.2	-.61	.36	4.13	.36	4.74	.19
일치-고 _A	고-고	117	30.7	.23	.20	5.00	.00	4.77	.20
<i>df</i>				(3, 377)		(3, 377)		(3, 377)	
<i>F</i>				110.88***		207.82***		183.35***	

*** : $p < .001$

표 4.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II}의 고저에 따른 집단 분류 및 평가 점수-사회비교 지표

집 단	자기평가-타인평가 _{II}	빈 도	%	자기평가-타인평가 _{II}		자기평가		타인평가 _{II}	
				M	(SD)	M	(SD)	M	(SD)
일치-저 _B	저-저	147	39.3	.23	.67	3.88	.57	3.65	.41
고양 _B	고-저	54	14.4	1.42	.57	5.00	.00	3.58	.57
겸양 _B	저-고	44	11.8	-.67	.80	3.98	.73	4.65	.23
일치-고 _B	고-고	129	34.5	.17	.23	5.00	.00	4.83	.23
<i>df</i>				(3, 370)		(3, 370)		(3, 370)	
<i>F</i>				117.49***		200.30***		299.57***	

*** : $p < .001$

일치-저집단_B와 일치-고집단_B는 각각 147명(39.3%)과 129명(34.5%)이었고 고양집단_B와 겸양집단_B는 각각 54명(14.4%)과 44명(11.8%)이었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II}로 구분된 집단별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II}의 차이값,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_{II}의 기술통계치와 집단 간 변량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자기통찰 지표의 자기고양에 따른 집단별 적응의 차이

삶의 만족에 있어서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F_{(3, 237)}=1.32, n.s.$, 자존감에서는 집단 간 차이의 경향성만 나타났고, $F_{(3, 360)}=2.14, p < .10$.

신경증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의 경향성만 나타났고, $F_{(3, 360)}=2.44, p < .10$, 고양집단_A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M=2.67, SD=.77$). 사후검증 결과 고양집단_A가 일치-저 집단_A보다 신경증이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개인수행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_{(3, 377)}=10.99, p < .001$, 사후검증 결과 일치-고 집단_A가 일치-저집단_A와 고양집단_A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나타냈으며, 겸양 집단_A는 일치-저집단_A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다.

이상에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에 따른 집단별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적응의 지표 중 삶의 만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자존감과 신경증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의 경향성만 나타났고, 적응의 객관적 지표로 개인수행에 있어서는 일치-고집단_A가 가장 양호하였고 일치-저집단_A와 고양집단_A보다 양호한 수행을 보였다. 겸양집단_A는 일치-저집단_A보다 양호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사회비교 지표의 자기고양에 따른 집단별 적응의 차이

삶의 만족에 있어서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F_{(3, 233)}=.98, n.s.$, 자존감에서도 집단 간

표 5.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에 따른 집단별 적응의 차이 (one-way ANOVA)

		1. 일치-저 _A	2. 고양 _A	3. 겸양 _A	4. 일치-고 _A	<i>df</i>	<i>F</i> 값	사후검증 (Scheffe 방식)
삶의 만족	<i>M</i>	4.04	4.30	4.38	4.33	(3, 237)	1.32	.
	(<i>SD</i>)	(1.08)	(1.19)	(1.09)	(1.14)			
자존감	<i>M</i>	3.10	3.24	3.17	3.24	(3, 360)	2.14+	.
	(<i>SD</i>)	(.47)	(.49)	(.41)	(.51)			
신경증	<i>M</i>	2.96	2.67	2.97	2.86	(3, 360)	2.44+	1>2 ⁺
	(<i>SD</i>)	(.74)	(.77)	(.74)	(.75)			
개인 수행	<i>M</i>	-.30	-.12	.08	.37	(3, 377)	10.99 ^c	1<3 ⁺ , 1<4 ^c , 2<4 ^a
	(<i>SD</i>)	(1.12)	(.97)	(.79)	(.78)			

+: $p<.10$ a: $p<.05$, b: $p<.01$, c: $p<.001$ 표 6.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B에 따른 집단별 적응의 차이 (one-way ANOVA)

		1. 일치-저 _B	2. 고양 _B	3. 겸양 _B	4. 일치-고 _B	<i>df</i>	<i>F</i> 값	사후검증 (Scheffe 방식)
삶의 만족	<i>M</i>	4.15	4.56	4.21	4.24	(3, 233)	.98	.
	(<i>SD</i>)	(1.08)	(1.28)	(1.08)	(1.11)			
자존감	<i>M</i>	3.12	3.27	3.16	3.23	(3, 356)	1.90	.
	(<i>SD</i>)	(.46)	(.46)	(.42)	(.51)			
신경증	<i>M</i>	3.02	2.87	2.79	2.76	(3, 356)	3.18 ^a	1>4 ^a
	(<i>SD</i>)	(.73)	(.71)	(.64)	(.78)			
개인 수행	<i>M</i>	-.13	.43	-0.27	0.09	(3, 370)	5.84 ^c	1<2 ^b , 2>3 ^b
	(<i>SD</i>)	(1.11)	(.66)	(.94)	(.95)			

a: $p<.05$, b: $p<.01$, c: $p<.001$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_{(3, 356)}=1.90$, *n.s.*

신경증에 있어서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_{(3, 356)}=3.18$, $p<.05$, 사후검증 결과 일치-저집단_B이 일치-고 집단_B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신경증을 나타냈다. 개인수행에 있어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F_{(3, 370)}=5.84$, $p<.001$, 사후검증 결과 고양집단_B가 일치-저집단_B와 겸양 집단_B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B에 따른 집단별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과 자존감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서적 안정성에 있어서 일치-저집단_B보다 일치-고집단_B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의 객관적 지표인 개인수행에 있어서는 고양집단_B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일치-저집

단_B와 겸양집단_B보다 양호한 개인수행을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고양을 하는 사람들이 적응도 잘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관찰 가능한 행동 영역에서 자기고양을 측정하고 자기고양의 세 지표인 자기통찰 지표, 사회비교 지표 및 SRM(Social Relations Model) 지표를 산출한 후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적응의 지표로 삶의 만족, 자존감, 정서적 안정성 및 개인수행을 선정하여 자기고양의 지표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고양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 안정성도 양호하나, 개인수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

회비교 지표에서 자기고양이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자존감 및 개인수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수행 측면에서 자기통찰 지표와 대조를 이루었다.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가 제거된 자기고양이 SRM 지표의 경우 유일하게 자존감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SRM 지표로 측정된 순수한 자기고양이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라는 적응 지표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점수의 고/저, 사회비교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_n 점수의 고/저에 따라 각각 일치-저, 고양, 겸양, 일치-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적응 지표상에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자기고양 여부 여부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일치-저, 겸양, 일치-고 세 집단이 포함된 집단별 적응 특성에 접근하였다. 집단 간 비교 결과, 자기통찰 지표를 이루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점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 개인수행에 있어서는 일치-고집단_a가 고양집단_a와 일치-저집단_a보다 양호한 수행을 나타냈고, 겸양집단_a가 일치-저집단_a보다 양호한 수행의 경향성을 보였다. 고양집단_a는 정서적 안정성에서 일치-저집단_a보다 양호한 경향성만을 나타냈다. 사회비교 지표를 이루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n의 고/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 고양집단_b의 수행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일치-저집단_b과 겸양집단_b보다 양호한 수행을 나타내 자기통찰 지표와 대조를 이루었다. 집단별 적응의 차이분석 역시 자기고양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자기통찰의 관점에서 하느냐 혹은 사회비교의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개인 적응이 양호한 집단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기통찰의 관점에 따른 집단분류는 개인수행에서 고양집단_a보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_n가 일치하면서 두 평가 모두 양호한 평가를 받은 일치-고집단_a가 양호한 반면, 사회비교 관점에서의 집단분류는 자기평가는 높고 타인평가_n는 낮은 고양집단_b가 수행에서 다른 세 집단보다 가장 양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고양이 지표와 적응의 측정치(자기보고 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자기고양과 적응과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자기통찰 지표 또는 사회비교 지표 중

한 가지 지표만으로 자기고양과 적응의 관련성을 연구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동일한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자기고양이 자기통찰 지표, 사회비교 지표, 그리고 SRM 지표를 산출해냄으로써 이들 지표를 동시에 비교하고 적응과의 관련성을 고찰함으로써 세 지표에 대한 체계적 비교와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의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특성에 있다. 먼저 자기고양이 지표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타인평가 점수와 타인평가_n 점수는 10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관찰되었고, 능력과 성격에 대한 평가가 아닌 관찰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외현행동에 대한 평가 점수이다. 조구성은 무선으로 이루어졌지만 10주 이상의 행동관찰을 통해 조원평가가 이루어졌기에 특정 특질이나 성격 측면에 대한 평가보다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타인평가는 자신을 제외한 2~7명의 조원들의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편향되지 않은 보다 신뢰할 만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변인으로서 수행은 두 시점 이상에서 수집된 해당과목의 시험 및 출석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보고 자료가 아닌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적응의 지표로서 삶의 만족, 자존감, 정서적 안정성 변인은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와는 별도로 약 2주의 시간간격을 두고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처럼 자기고양 지표의 산출에 사용된 평가치들, 개인수행 및 적응의 지표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됨으로써,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common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의의는 기존 연구들이 자기고양이 정도와 적응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기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기통찰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_n 점수의 고/저, 사회비교 지표에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_n 점수의 고/저에 따라 각각 일치-저, 고양, 겸양, 일치-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고양 집단 이외의 세 집단이 적응 상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일치 집단을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범주화한 것과

달리 평가치들이 모두 낮은 경우(일치-저 집단)와 모두 높은 경우(일치-고집단)로 분류하여 일치 집단을 세분화하고 집단별 적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연구(Kwan et al., 2004; Kwan et al., 2008; Lönnqvist et al., 2008)를 제외하고 자기고양과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각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에 대해 간과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 두 효과를 분리하여 이들과 적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기고양의 세부 요인 각각이 적응의 어떤 측면과 관련을 갖는지 세부적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고양의 사회비교 지표와 개인수행간의 정적 상관($r=.25, p<.001$)은 자기고양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수행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고양의 지표 산출에 장기간의 행동(조별활동의 참여·기여도) 관찰 및 평가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 주관적인 행동 평가에 실제 행동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즉 실제로 과제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평가 점수를 높게 줌으로써, 자기고양의 사회비교 지표에 대상 효과가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각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가 배제된 순수한 자기고양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SRM 지표는 자존감과 유일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고양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기고양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기고양은 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조별활동의 참여·기여도)과 기준(타인평가, 타인평가_h)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장면에서 자기고양을 다루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고양 지표가 산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고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면서도 좀 더 일상과 관련된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고양의 SRM 지표와 다른 적응 지표와의 관련성 고찰을 통해 SRM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 효과가 삶의 만족, 정서적 안정성 및 개인수행 측면에서 대조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상 효과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 개인수행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각각 $r=.14, p<.05, r=.34, p<.001$), 신경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r=.11, p<.05$), 남들이 인정할 만큼 조별과제에 대한 참여·기여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수행은 높으나, 정서적 안정성은 낮음을 시사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정서적 안정성의 측정 시점이 기말고사를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학기말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경증과 개인수행 또한 정적 상관($r=.14, p<.01$)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신경증, 대상 효과 및 개인수행에 대한 제3변인(예: 완벽주의)의 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제3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아니며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고양의 선행요인들과 자기고양의 결과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통해 자기고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자기고양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적응을 분류하는 주요 차원 중 하나가 개인적응과 대인관계 적응의 차원이며(Scott, 1968), 자기고양은 개인 적응보다는 대인관계 적응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Bonanno, Field, Kovacevic, & Kaltman, 2002; Paulhus, 1998).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적응의 지표로 삶의 만족, 자존감, 정서적 안정성 및 개인수행을 선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측면의 적응에 대한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인적응을 누가 평가하는가(자기보고 대 동료평가) 또한 자기고양과 대인적응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Kurt & Paulhus, 2008), 평가자에 따라 자기고양과 대인관계 적응의 관계가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고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별과제 참여도와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각각 5점 척도로 이뤄진 단문항만 사용하였기에 분산이 크지 않았다. 특히 자기평가의 경우 타인평가와 타인평가_h보다 좌측으로 편포되어 집단 분류시 중앙값을 기준으로 범주화할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자기고양이 측정되는 영역 또한 자기고양과 적응 간 관계의 불일치 원인이 될 수 있기에(Kurt &

Paulhus, 2008),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타인평가 및 타인평가_i 모두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평가 영역을 찾아내고 다양한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분산이 커질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홍, 전병우 (2003). 두 자기평가의 편향과 자존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16.
- 노연희, 손영우 (2011). 자기평가의 정확도와 수행 및 개인특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03-126.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21-47.
- 최해연, 구자숙 (2009). 자기기만적 고양의 방어성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63-79.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twater, L., & Yammarino, F. J. (1997). Self-other agreement: a review and model.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15, 121-174.
- Atwater, L., Ostroff, C., Yammarino, F. J., & Fleenor, J. W. (1998). Self-other agreement: Does it really matter? *Personnel Psychology*, 51, 577-598.
- Bass, B. & Yammarino, F. J. (1991). Congruence of self and others' leadership ratings of naval officers for understanding successful performanc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0, 437-454.
- Bonanno, G. A., Field, N. P., Kovacevic, A., & Kaltman, S. (2002). Self-enhancement as a buffer against extreme adversity: Civil war in Bosnia and traumatic loss in the Unite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84-196.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58-368.
- Colvin, C. R., Bol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Cross, P. (1977). Not can but will college teachers be improve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7, 1-1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ener, E., Emmons, R. A., Larso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Mervielde, I. Deary, F. De Fruyt, & F. Ostendorf(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Vol. 7, pp.7-28). Tilburg University Press: The Netherlands.
- Gramzow, R. H., Elliot, A. J., Asher, E. & Holly, A. (2003). Self-evaluation bias and academic performance: Some reasons w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41-61.

- Jahoda, M.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 John, O. P., & Robins, R.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analysis*. New York: Guilford.
- Kenny, D. A., & La Voie, L. (1984). The social relations model.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8, pp. 142-182). Orlando, FL: Academic.
- Kobayashi, C., & Brown, J. D. (2003). Self-esteem and self-enhancement in Japan and Americ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567-580.
- Kurt, A., & Paulhus, D. L. (2008). Moderators of the adaptiveness of self-enhancement: Operationalization, motivational domain, adjustment facet, and evaluat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839-853.
- Kwan, V. Y., John, O. P., Kenny, D., Bond, M. H., & Robins, R. W. (2004). Reconceptualizing individual difference in self-enhancement bias: An interpersonal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11*(1), 94-110.
- Kwan, V. Y., John, O. P., Robins, R. W., & Kuang, L. L. (2008).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elf-enhancement bias: A componenti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1062-1077.
- Lönnqvist, J., Leikas, S., Verkasalo, M., & Paunonen, S. (2008). Does self-enhancement have implications for adjustment?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377-386.
- Paulhus, D. L. (1986). Self-deception and impression management in self-reports. In A. Angleitner & J. S. Wiggins (Eds.), *Personality assessment via questionnaire*. New York: Springer-Verlag.
-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40-35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W. A. (1968). Concepts of normality. In E. F. Borgatta & W. W. Lambert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Rand-McNally: Chicago.
- Taylor, S. E., Lerner, J. S., Sherman, D. K., Sage, R. M., & McDowell, N. K. (2003). Portrait of the self-enhancer: Well adjusted and well liked or maladjusted and friendl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65-176.
- Taylor, S., & Brown, J.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 Brown, J. (1994). Positive illusion and well-being revisited: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21-27.
- Warner, R. M., Kenny, D. A., & Stoto, M. (1979). A new round robin analysis of variance for social interaction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42-1757.

부 록

자기평가, 타인평가, 및 타인평가에 따른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 예

지각자	대상(Targets)					행 평균	지각자 효과
	A	B	C	D	E		
A	Self	4	1.5	3	3.5	3.00	-1.25
B	5	Self	5	5	4.5	4.88	.63
C	4	4.5	Self	5	4	4.38	.13
D	5	5	5	Self	3.5	4.63	.38
E	3.5	5	4	5	Self	4.38	.13
열 평균	4.38	4.63	3.88	4.50	3.88	4.25	
대상효과	.13	.38	-.37	.25	-.37		집단평균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자 효과의 경우, 지각자 A는 대상이 되는 B, C, D, E를 평가하는 지각자이면서 그들에 의해 평가받는 대상이 된다. A가 대상 B, C, D, E에게 부여한 참여·기여도 점수는 각각 4, 1.5, 3, 3.5점으로 조원들에게 평균 3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지각자로서 A가 자신을 제외한 조원들에게 부여한 점수는 A, B, C, D, E의 조원들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조원들에게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 4.25점보다 1.25점 낮고, 이는 A가 다른 지각자에 비해 다른 조원들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대상 효과의 경우, 대상자로서 A는 지각자인 B, C, D, E의 조원들로부터 각각 5, 4, 5, 3.5점의 점수를 받았고 A가 받은 평균 점수는 4.38로서 A, B, C, D, E의 조원들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조원들에게 받은 점수의 평균인 4.25보다 .13이 높다. 이는 조원들의 평균적인 참여·기여도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기여도를 나타냈음을 뜻한다. 행 평균은 A, B, C, D, E의 지각자가 자신을 제외한 대상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며, 열 평균은 A, B, C, D, E의 대상자가 자신을 제외한 지각자로부터 받은 평가점수의 평균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Warner, Kenny 및 Stoto(1979)가 보여준 라운드 로빈 설계에서의 '파트너 누락 편향'을 교정하기 위한 공식(Kenny, 1994; Warner et al., 1979)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지각자 효과와 대상 효과를 산출하였다.

The Self-enhanc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Adjustment

Youn-Hee Roh Young Woo Sohn

Korea University Brain-Based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lf-enhance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individual adjustment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 total of 386 undergraduate students rated themselves and others in their groups on the extent to which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group-based task. Using the scores of self-rating, rating by others, and rating of others, three self-enhancement indices were computed such as self-insight index (comparing self-rating with ratings by others), social comparison index (comparing self-rating with ratings of others), and social relations model index (subtracting perceiver effect and target effect from self-r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elf-insight index correlated positively with self-esteem and emotional stability, and negatively with individual performance. Social comparison index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contrast to the self-insight index, social comparison index correlated positively with individual performance. SRM index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only self-este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lf-rating, rating by others, and rating of others, individuals were also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s in-agreement/high raters, in-agreement/low raters, self-enhancers, and self-effacer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erms of individual adjustment, one-way ANOVAs and post-hoc analysis were used.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nhancement and individual adjustment vary with both self-enhancement indices and individual adjustment measures.

Keywords: self-enhancement, self-insight index, social comparison index, SRM index, individual adjustment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7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11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11월 27일